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름 밤하늘을 수놓다

리뷰-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

풍부한 테크닉 감성적 표현 인상적 '바티스타 과다니니 첼로' 품격 더해

첼리스트 피터 비스펠베이가 들려줄 곡은 협연악기 편성이 없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코다이 첼로 소나타'. 오직 첼로를 위한, 첼로에 의한 선율을 기대하며 객석은 숙측였다.

서곡 프렐류드부터 경쾌한 춤곡 쿠랑트로 이어지는 흐름은 관객을 황홀경으로 인도했다. 바흐에 대해 이리 명확한 해석을 내놓다니,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없이도 청중과 합일하는 미적 확산과 강단의 보잉(현악기 활을 쓰는 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난 11일 광주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쳐진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은 바로크시대 절대음악의 미학과 독특한 리듬, 무반주 첼로곡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주)아이시루가 주최한 이번 공연은 첼리스트 최초로 네덜란드 여왕으로부터 '국가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그라모폰, 더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의 국제적 찬사를 받은 피터 비스펠베이의 내한 독주회였다. 이 밖에도 비스펠베이는 50여 장 앨범을 발매하고 엘리자베스 에버츠상을 수상하면서 음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비스펠베이는 공연에 앞서 "2019년 ACC에서 첼로 연주회를 진행했었는데 이후 광주 공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준비해 왔다"며 "이번 리사이틀에는 2년 전 유명을 달리한 아들 '도리안 비스펠베이'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공연 포스터와 기념품(커피)을 수놓은 '푸른 해바라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이는 자신의 영향을 받아 예술가의 길을 걷던 죽은 아들을 상징한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연이 뇌리에 잔상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자전적 영상으로 시작된 공연은 '바흐 모음곡 1번 G장조, BWV 1007'의 밝고 낙관적인 악상으로 이어졌다. 클래식 첼리스트들의 바이블로 손꼽히는 이



지난 11일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피터 비스펠베이 첼로 리사이틀'이 열렸다.

곡은 여러 CF송으로 삽입돼 익숙하다.

바흐가 자신의 여섯 개 조곡 중에서도 이 작품을 1번으로 명명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풍부한 테크닉과 감성적 표현은 여섯 모음곡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첼로 한 대로 선율악기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반주까지 소화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묘사하는 주제부와 변주의 얽힘은 마치 '홀로 대화하는 느낌'을 줬는데, 방백이나 독백이라기보다 아들과 나누는 '음악적 대화'처럼 느껴졌다.

다음 곡 '바흐 모음곡 4번 E플랫장조, BWV 1011'이 울려 퍼지자 공연장 분위기는 일순 엄숙해졌다. 비스펠베이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아르페지오 음형들을 레가토(연음)와 상호작용시키며 낭비하는 음계

하나 없이 묘사했다. 중후한 첼로 음색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면서 소리의 양감(量感)을 남겼다.

폼에 안고 있는 첼로의 모습도 인상적. 2004년 과다니니 악기 사상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1760년산 지오바니 바티스타 과다니니 첼로'의 품미는 오래된 와인처럼 공연의 품격을 더했다.

'사라방드'에 이르러서는 과한 비브라토(떨림) 없이 미니멀한 선율을 들려줬다. 저음역 악기인 만큼 소리가 죽는 '올프론'이나 '데스 스팟'을 찾아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첼로는 서양악기임이 분명하나 눈을 감고 있으면 동양의 절연악기인 해금을 탄주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코다이의 '첼로 소나타 B단조, Op.8'도 레퍼토리에 있었다. 헝가리의 민속 음악을 수집하고 체계화하는데 평생 바친 작곡가 코다이의 곡답게 토속적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곡은 음단에서 "첼로의 모든 테크닉이 등장한다"고 평할 만큼 고난도 작품이지만 비스펠베이는 여유롭게 음계 위를 완성했다. 그가 국제무대는 물론 세계적인 레이블과 작업하고 시드니 심포니, 로테르담 필하모니, 플란더스 심포니 등과 함께 해온 시간이 가능했다.

대미를 장식한 곡은 바흐의 '모음곡 5번 C단조, BWV1011'. 모음곡 1번과 4번, 코다이 소나타의 변주를 거쳐 바흐 5번으로 되돌아오는 구성 자체부터 대위적으로 읽혔다. 이들은 넘바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조성 등에 있어 하나의 조곡(組曲)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짜임새가 있었다.

'모음곡 5번'에는 인간의 휘몰아치는 격양-템페스트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었다. 에스파냐의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가 이 작품을 '격정적(tempestuous)'이라 평한대로 강렬한 페이스가 전해졌다.

악곡은 영화 '폰네프의 연인들'에 삽입되면서 한 번 더 유명세를 치른 바 있다. 비스펠베이의 눈빛에는 쉐느 강의 아홉 번째 다리 폰네프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방황하던 주인공의 우수 같은 게 드러내져 있었다. 헌정의 의미를 담은 이날 공연의 피날레로 적절했다는 평가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기도의 언어로 채워진 비유와 상징

화순 출신 이명덕 시인 '당신에게 봄' 펴내

시인에게 시는 다양한 의미로 기호화된다. 어떤 이에게 시는 추구하는 예술세계이며, 어떤 이에게는 내밀한 내적 고백이기도 하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예술에 대한 지고지순한 지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가 기도인 시인도 있다. 화순 출신 이명덕(사진) 시인이 최근 펴낸 '당신에게 봄' (문학의 전당)은 절대자를 향한 기도이자 간구로 다가온다. 한 편 한 편이 주는 깊이와 무게, 울림이 만만치 않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한없이 작고 남루하지만 두 손은 모을 때마다 손끝을 타고 오는 전율이 있다"며 "당신이라는 인정대명사에 다 담을 수 없는 너무 거대하고 아련한 섬광 같은, 그러나 나의 기도가 매일매일 뜨거울 수밖에……"라고 말한다.

작품집에는 현실의 삶을 성찰하면서도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고 노래하는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종교가 규범의 영역인 반면 문학은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부분은 일정 부분 사유가 겹친다.

"잘못 쓴 글자 하나 때문에/ 온 여백을 구겨 버린 일 있다/ 잘못 쓴 글자는 폭력이 된다// 백지 위에 글을 쓸 때마다/ 글자에 무슨 오물이 묻진 않았는지/ 어떤 미움과 회초리가/ 들어 있지 않나 살피게 된다(후략)"

위 시 '백지'는 말의 중요성, 엄숙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일상에서 쉽게 쓰는 세상의 말, 신앙과 구도를 담은 진리의 말 사이의 길항을 섬세하게 바라본다. 언어는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기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



는 가는 존재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언어의 과잉, 의도된 주관 등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들을 읽노라면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지니는 깊이와 담백한 미를 느낄 수 있다. 성경 속 시편과 잠언의 미학이 배면에 드러워져 있어 종교적 사유는 물론 시인의 시적 세계를 어렵잖이 가능할 수 있다.

이해인 수녀는 추천사에서 "오래된 대장간에서 쇠가 말랑해지는 걸 지켜보며 남루한 이웃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 하는 생활 속의 시인입니다"라며 "시인에게 깊이 스며든 신앙심은 시의 자양분임에 분명하고 낮은 곳을 향한 사랑의 원천임에 틀림없이 보여줍니다"라고 평한다.

한편 이명덕 시인은 '현대시학'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도다리는 오후에 죽는다', '그 여자 구름과 자고 있네', '스펄나무 신년'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수카바티:극락 축구단' 관객과의 만남

'축구 오타쿠'들과 구단의 동반 성장기... 16일 광주극장

K리그 축구단인 'FC서울'의 전신은 1983년 만들어진 '력기금성 황소'였다. 이들은 1996년 안양으로 연고지를 옮긴 뒤 LG 치타스로 팀명을 변경했으며, 2003년 시즌 종료 후 돌연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하면서 팬들에게 원성을 산다.

구단의 결정에 응원할 팀을 잃은 서포터즈 'A.S.U RED'는 시민구단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한 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축구 서포터즈들의 열정, 애정어린 모습을 그린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이 '수카바티:극락축구단' 관객과의 만

남(GV) 행사를 오는 16일 오후 7시 20분에 연다. 최근 1만 감독을 돌파한 영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은 '축구 오타쿠'들과 구단의 동반 성장기를 그렸다.

작품은 선호빈·나바루 감독의 공동 작품이며 지난 31일 개봉했다. 정식 개봉 전인 지난해에는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올해 노이다 국제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춘천영화제 등에서 상영됐으며, 노이다 국제영화제에서는 베스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제목의 '수카바티'란 불교 용어에서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극락세계는 안양세계(安養世界)로도 표현되는데, 이 같은 점에서 착안해 FC 안양을 응원하는 서포터즈의 구호로 사용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여성길 문화해설사' 교육생 모집... 27일부터 교육

"광주 근대여성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문화해설사'에 도전하세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광주여성길 문화해설사'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선착순 20명 내외 선발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10시~12시에 실시한다. 기본·심화과정을 나눠 진행하며 근대 광주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 여성사 해설의 중요성 등을 전하는 해설사 양성에 목표를 둔다.

기본과정 80% 이상을 수료하면 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마친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 자격을 부여하며, 9월 24일부터 10월 16

일까지 총 5강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광주여성길 현장에서 해설 기법을 학습하며 해설 시나리오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선배 해설사가 진행하는 도보투어에 2회 이상 참여하는 등 의무사항이 뒤따른다.

해설사 자격을 부여받으면 내년부터 광주여성길 문화해설사로 활동 가능하다. (해설수당 지급)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근대역사와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에서 활약했던 여성들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해설사'를 모집한다"며 "성평등 관점, 여성길의 가치 등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